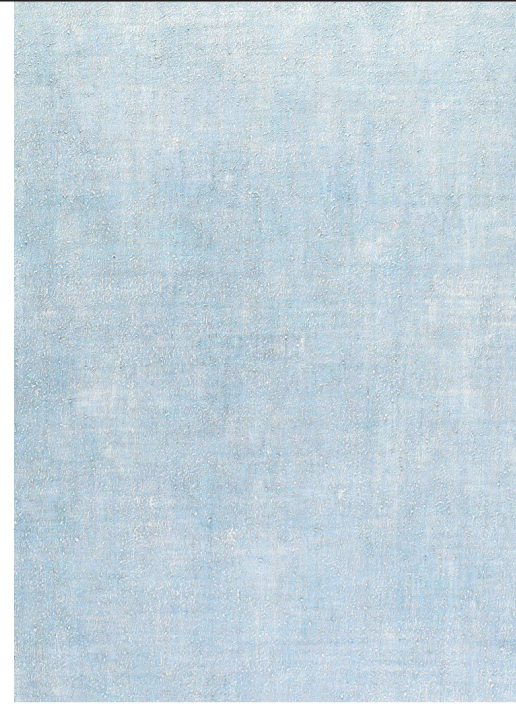




고화음 작 '백안'



유영국 작 '무제'



강운 작 '마음산책-눈'

자연과 여백, 관조와 사유... 한국 추상미술을 가늠하다

김환기와 유영국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서구의 추상미술과 달리 한국의 추상미술은 동양적 예술관을 토대로 한다. 자연과 여백, 관조와 같은 사유가 배면에 깔려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한국 추상화의 다채로운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색'과 '형'의 비정형적 구성을 통해 '조형 시(詩)'를 장안한 작가들의 작품은 색다른 이미지의 세계를 선사한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오는 3월까지 기증 작품전 '시적추상' (時的抽象)전을 연다. 지난 20일 개막한 이번 전시에서는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유영국 외에도 고화음, 오숙환, 이철주, 진유영, 강운, 이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증을 매개로 열린다는 점에

서 의미가 남다르다. 문화자산의 가치가 지역사회의 골고루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지호 관장은 "미술관은 지금까지 수증된 작품을 깊이있게 연구해 기증품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했다"며 "이번 전시는 기증 작품이 내재한 고유한 가치와 예술적 미학을 함께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모두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적 추상-사유의 세계', '서정적 추상-자연의 생명력', '관념적 추상-색채의 풍경'이 그것.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작품인 '한국적 추상-사유의 세계'는 김환기와 유영국의 작품을 만난다. 김환기는 산과 달을 비롯해 항아리 등 자연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소재를 매개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형

상화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작품 '무제'는 중앙에 특정 모형의 도형을 배치하고 사방으로 기다란 무늬를 배치한 그림이다. 특정한 사물이나 자연을 압축적으로 묘사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보는 이에게 독특한 미감을 전해준다.

유영국의 '산'은 무엇보다 단순화한 산의 이미지가 시선을 끈다. 계단 너머로 커다란 조각이 배치된 듯한 그림은 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상으로 다가온다. 세세한 숲이나 나무 등은 제거하고 전체적인 윤곽만을 남겨 둔 모습은 사뭇 강렬하다.

김소라 팀장은 "유영국은 초기에는 기하학적 추상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할된 면의 비구상적 형태로 산을 형상화한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후에는 동양적 사유를 투영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서정적 추상-자연의 생명력' (1980-1990년대)은 자연과 교감을 토대로 내면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고화음, 이철주, 오숙환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고화음은 이상적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했으며 이철주는 선과 면의 적절한 배치를 매개로 우주의 기운생동이 느껴지는 수묵추상에 초점을 맞췄다. 오

숙환은 먹을 운용해 자연의 순간성에 주목한 추상을 펼쳤다.

'관념적 추상-색채의 풍경'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강운을 비롯해 이인, 진유영의 작품을 만난다. 이인은 해질 무렵의 바다 풍경을 번짐과 대비로 묘사했으며 강운은 깊고 푸른색의 추상화로 슬픔을 승화한 추상화를 선보인다. 진유영은 붓자국으로 채워진 색면과 기호학적 구도로 내적 세계를 드러낸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를 매개로 기증 작품이 공공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며 "귀중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작가를 비롯해 기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재단, 대중화 공연·융복합형 어린이문화원 활성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린이가족축제 HOW FUN'
슈퍼클래식 '노부스 콰르텟' 등



ACC재단은 올해 설립 2주년을 맞아 수준 높은 대중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빅도어시네마 장면. <ACC재단 제공>

5·18을 다룬 '시간을 칠하는 사람',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부스 콰르텟',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시민오케스트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올해 대중화 공연 및 융복합형 어린이문화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설립 2년을 맞은 ACC재단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재단은 가장 중점적으로 어린이문화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도 어린이체험관을 비롯해 어린이도서관 등 일부 공간의 개선을 추진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5월)은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가족 단위 관객들이 지구촌 문화를 보다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취약계층 대상 심리방역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협력 프로그램 등 빛고를 어린이 연극전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브랜드 공연인 브랜치콘서트(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2월)를 시

작으로 막을 연다. '김세환, 윤형주의 비밀의 정원' (3월)을 비롯해 올 12월까지 금관 앙상블부터 가곡, 아카펠라, 뮤지컬을 아우르는 대중성 있는 공연들이 예정돼 있다.

슈퍼클래식은 구체적인 라인업이 결정됐다. '노부스 콰르텟', '사라 장'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대중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ACC 퍼니'에서는 뮤지컬 '빨래'와 최정원, 배해선, 마이클 리 등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넥스트 투 노발'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ACC 창작제 콘텐츠의 교류 및 유통 플랫폼 업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5·18민중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소극장 규모로 재제작해 5·18민중화운동

44주년을 맞은 오는 5월 서울에서 20회 공연을 진행하며, ACC 창작제 어린이 공연인 '세 친구'와 '괴물 연을 그리다'는 용인에서 12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시민오케스트라와 찾아가는 예술극장, 지역 소극장 협력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이 전략기획팀장은 "ACC재단은 올해 어린이 문화콘텐츠 운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중친화적인 콘텐츠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객들이 방문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선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다

목포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2월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피아니스트 문정재. <목포시립교향악단 제공>

오페라가 선사하는 감동과 전율은 새해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다.

신년을 맞아 목포시립교향악단(이하 목포시향)의 '2024 목포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가 2월 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먼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 로시니가 남긴 38편의 오페라 중 발렐름 텔과 함께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표작으로 명쾌한 리듬과 멜로디라인으로 인해 인기를 누려 왔다. 이어 동일한 작품에 삽입된 곡 '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등 주옥같은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베르디 작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이상해라... 아! 그이었던가... 언제나 자유롭게'를 비롯해 임경수 곡 '강 건너 봄이오듯'은 소프라노 이윤정이 협연할 예정이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호두까기인형에서 피날레에 등장하는 '꽃의 왈츠'도 레퍼토리에 있다. 사탕 요정의 시너를 24명이 추는 군무로도 잘 알

려져 있는 작품. 거수원이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해 만든 '랩소디 인 블루'는 피아니스트 문정재가 협연한다.

이밖에 라벨의 '라발스',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도 목포시향이 들려준다.

목포시향 정현 삼임지휘자는 "신년음악회를 장식하는 화려한 음악들이 새해의 시작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르디의 오페라 곡부터 차이콥스키의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림책 '알사탕' 뮤지컬로 만나요"

백희나 작품... 20~21일 순천시문예회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받은 백희나 동화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이 뮤지컬로 살아난다.

싱크브릿지가 주최하고 할리퀀크리에이션즈가 제작한 뮤지컬 '알사탕'이 오는 20~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순천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대본은 전수양, 장희선 작가가 썼으며 홍승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기 힘들어하는 9살 남자아이 동동이. 아빠의 동동이에 대한 애정은 가득한 것 같지만 막상 입에서 나오는 건 매일 잔소리뿐이다. 동동이 키우고 있는 열여덟 살 개 구슬이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지만,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어 동동이는 늘 혼자 지낸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

려 하루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구슬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다.

어느 날 동동이는 구슬을 사러 문방구에 방문한 뒤 이상한 알사탕을 산다. 사탕 한 알을 입에 집어 넣자 "동동아~ 동동아~ 여가야"라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 문방구 아저씨에게 산 사탕의 정체는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의 알사탕이었던 것이다. 공연은 알사탕을 먹으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동동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연의 원작인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은 2017년 YES24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일본 그림책 대상 번역그림책상, 2023 프리미엄 안테라선상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뮤지컬 '알사탕' <할리퀀크리에이션즈 제공>
1층 석 6만 원, 2층 석 4만 원(상시할인 40%), 티켓링크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청년, 문학을 만나다'

세계한글작가대회 기념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 문집 발간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펼쳐진 세계작가대회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한글을 토대로 세계와 화합하는 방안은 물론 우리 문학의 세계화 등을 고민해보는 자리였다. 또한 광주청년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미래문학의 창출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기념하는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 문집이 발간됐다.

국제PEN 세계한글작가대회(이사장 박신영)가 펴낸 '광주청년, 문학을 만나다'는 광주문학의 미래를 여는 청년작가 한마당에서 발표된 다양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광주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글에는 문순태 소설가의 '5·18 소설, 내일의 과제', 이기호 광주대 교수의 '광주 바로 옆자리' 등의 글이 실렸다.

'광주청년작가 포럼-문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글에는 송기영 시인의 '독립책방, 마주침의 공간', 이성환 시인의 '국제PEN과 번역



사업', 문희희 시낭송가의 '놀이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등의 글이 게재됐다.

박신영 이사장은 "이번 포럼발간은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진행됐던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과 관련한 의미있는 글들을 담고 있다"며 "책 발간을 계기로 광주 청년문학과의 적극적인 문학적 소통과 접목을 매개로 광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향점 등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은 세계한글작가대회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문학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